



급물살타는 한-중 FTA 논의와 철강산업

- 한-중 FTA는 2004년 최초 논의 이후 8년 만에 급물살을 타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 이전에 개시 예상
- 협상은 ‘先 민감분야 협의, 後 본협상’ 방식으로 진행되나, 농축수산업계의 반발로 연내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
- 철강산업에 있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중요 투자처라는 점에서 협상 진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
- 철강분야에서는 중국의 관세 조기철폐와 투자여건 개선이 관심 사항이며, 중국산 철강재 유입 급증에 대비한 보호규정 마련도 중요 쟁점이 될 전망

1. 한-중 FTA 논의와 협상 절차

□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에 합의

- 한-중 FTA협상은 2004년 이후 오랫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왔으나, 이번에는 중국측의 적극적인 요구로 빠르게 진전
 - 후진타오 주석은 “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FTA를 개시하자”는 의견 제시
 - 2004년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추진을 합의한 후 8년 만에 FTA 체결 논의 본격화(별첨1: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내용)
 - 그 동안 양국은 민간 공동연구(2006)와 산관학 공동연구(2010) 등에서 민감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(별첨2: 한-중 FTA 추진 일지)

□ 협상 절차는 2단계로 진행: 先 민감분야 협의, 後 본협상

-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
 - 한국의 국내 절차는 짧게는 한달, 길어도 두 달 내에 진행될 전망. 반면, 중국은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특별한 국내 절차가 없음
 - ※ 한국의 국내절차: 1)관보 게재 → 2)공청회 개최 → 3)실무위원회 구성 → 4)FTA 추진위원회 심의 → 5)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
- 한-중 FTA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빠르면 2월부터, 늦어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 본협상 개시가 선언될 전망
 - 한-미 FTA의 경우, 국내 절차는 1개월 내에 완료
- 금번 2단계 협상 방식은 사전 협상에서 초민감, 민감, 일반품목을 어느 수준까지 포함시킬지 먼저 정하고, 본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
 - 만약 1단계에서 합의가 안되면 본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
 - 이에 따라 한-중 FTA는 한-미, 한-EU FTA와는 달리 개방도가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(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)

□ 한국 농축수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

- 한국 측의 농축수산물 시장개방의 범위가 최대 관건이며, 민감 품목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협상 속도가 결정될 것임
 - 주요 관심사항도 차이를 보여 단기간 내 합의는 어려울 전망(별첨3: 한-중 FTA의 주요 관심사항과 예상 쟁점)
- 특히 ‘농축수산업은 FTA의 최대 피해자’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한-미, 한-EU FTA 보다 반발이 더욱 거셀 전망
 - 이에 따라 한-미 FTA 체결 당시 나타났던 극단적인 사회갈등도 우려되고,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논란도 가열될 전망

2. 철강업 입장에서의 한-중 FTA의 추진 여건

□ 한·중 양국은 상호 최대의 철강무역 파트너

- 한국은 중국의 최대 철강 수출시장이고 중국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임. 또한 철강 수입에서도 양국은 의존도가 높음

<한국과 중국의 철강재 무역의존도>

	중국의 對韓 무역의존도			한국의 對中 무역의존도		
	2000	2005	2010	2000	2005	2010
수출	16.4%	24.5%	20.3%	15.8%	23.5%	15.4%
수입	12.7%	17.8%	25.1%	18.3%	38.3%	36.2%

- 중국의 철강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 상승, 2010년 현재 중국은 철강수입의 25%를 한국에 의존
 - 그러나 중국의 최대 수입은 일본이며, 총 수입의 49% 점유
- 한국의 철강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0년 36%까지 상승
 - 한국의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15%, 일본이 11% 수준
 - 반면 중국이 한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.3%에서 2005년에는 38.3%까지 상승한바 있어 핵심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
□ 철강산업의 해외 투자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중요 투자처로 부상

- 중국의 투자제한 여건 속에서도 중국 투자비중은 30% 수준을 유지
 - 중국 정부가 철강산업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지분을 제한하는 등의 투자 여건 악화에도 투자비중은 30%수준
 - 한편 국내업체들은 새로운 투자처로 인도, 동남아 등을 선호

<한국 1차 금속제조업 기준 해외투자 추이>

	총 투자 (백만 달러)	대 중국 투자 (백만 달러)	중국 투자비중
1996~2000	669	155	23.2%
2001~2005	892	643	72.1%
2006~2011.5/E	2,354	695	29.5%

-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양국간에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 실질적인 제도적 협력은 하지 못한 상태
 - 2001년부터 한중 민관 철강회의 개최, 2006년 이후 품목별 분과회의 마련 등 양국간 통상마찰 방지 뿐만 아니라 공동 발전방안 마련에 노력
 - 시장개방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므로, 양국간 FTA 추진의 중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

3. 철강분야의 한-중 FTA 여건과 핵심 쟁점

□ 철강분야에서는 다음의 4가지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

① ‘중국의 철강관세 조기 철폐’ 여부

- 중국은 철강 제품에 평균 5%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-중 FTA 협상에서는 중국 철강관세를 최단시간 내에 철폐하는 것이 중요
- 한국은 무관세인 반면 중국은 2~10% 부과(별첨4: 중국의 철강 관세)

② 중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‘보조금 지급 중단’ 여부

- 현재 중국 정부는 국영 철강사에 대해 직·간접적인 보조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, 이러한 지원 행위의 중단도 적극 요구할 필요
- 그렇지 못할 경우, 지속적인 설비증설과 정부 주도의 철강사 대형화로 가격경쟁력을 가진 잉여 철강재가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될 전망

③ 중국산 철강재 수입급증에 대비한 ‘특별 세이프가드 명문화’ 여부

- 단기간 내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, FTA 협정문 상에서 ‘특별 세이프가드 협의체 설치’를 명문화 요구 필요
- 최근 중국의 철강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, FTA가 아니더라도 중국산 철강재의 한국 유입은 확대될 전망

④ 철강산업 ‘투자 자유화’ 및 ‘외국인 투자제한 철회’ 여부

- 중국은 무역장벽보다 투자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. 특히 철강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제한이 對중국 직접투자의 최대 걸림돌
- 투자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, 한-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 기업의 對중국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

작성자: 이윤희 철강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(yoonhlee@posri.re.kr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.

[별첨 1]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

□ 금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은 2번째 국민 방문(총 6차례 방문)

○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9~11일 중국 방문

- 이대통령은 금번 방중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, 우방귀 전인대 위원장 및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지도부 최고위층과 면담

□ 한·중 양국은 이번 FTA 협상 개시 계획을 포함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'공동 성명'이 아닌 '공동 언론발표문'을 통해 공개

○ 이러한 형식은 중국측의 요구를 한국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

- 중국이 한국과 사실상 경제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에 북한이 자극 받을 수 있어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

□ 양국 '공동 언론발표문'은 주로 '외교 안보와 경제 교류'를 언급

○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양국 간 '접촉 채널 다양화· 고도화'에 합의

- 정부 고위층의 상호 접촉뿐만 아니라 의회·정당간 교류 활성화 지향
- 외교장관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고위급 전략 대화를 통해 소통을 증진하는 한편,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

○ 경제교류 차원에서 양국간 'FTA 관련 협의를 조기에 개시'하기로 합의

- 2015년경 교역 규모 3,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이 FTA 체결 관련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올 3월 중 협상 개시 합의
- 기후변화와 저탄소·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 강화
-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단계별로 산업표준, 상호 인증, R&D 공동 수행 등 분야로 협력 범위 확대
- 상호 금융기관들의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고, 양국간 연금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

□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: 한국은 '안보', 중국은 '경제'

○ 한국은 중국의 관심사인 한-중 FTA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대신, 북한 비핵화와 6자 회담 재개 등에 대해 중국과 공조 기대

- 중국의 인민일보에 “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목적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맞은 북한을 이해하고 중국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보도
- 차이나데일리는 “한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한중일 3국의 FTA 협상은 금년 5~6월에 개최될 것”이라고 전망

[별첨 2] 한-중 FTA 추진 일지

일시	주요 내용
2004. 9	민간 공동연구 추진 합의 (한·중 통상장관회담)
2005	공동연구 개시: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-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
2006. 11	민간 공동연구 종료,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(한·중 통상장관회담)
2007. 3	한-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1 차 회의
2007. 7	한-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2 차 회의
2007. 9	한-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: 농업, 수산업, 임업 등 전문가회의
2007. 10	한-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3 차 회의
2008. 2	한-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4 차 회의
2008. 6	한-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5 차 회의
2010. 2	한-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
2010. 5	한·중 정상, 산관학 연구 종료 합의
2010. 7	제 17 차 한·중 무역실무회담
2010. 9	한-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개시 (1 차 회의)
2010. 12	제 17 차 한·중 경제공동위
2011. 4	한·중 통상장관회담
2012. 1	한·중 정상, FTA 협상 국내절차 개시 합의

[별첨 3] 한-중 FTA의 주요 관심사항과 예상 쟁점

한국 측 관심사항		중국 측 관심사항	
주요 이슈	중요도	주요 이슈	중요도
자동차, 화학, 철강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조기 관세 철폐	●	농수산물, 섬유, 기계 등 경공업 및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개방	●
금융, 운송, 유통 등 서비스시장 개방	●	인력 이동, 교육, 서비스, 전문직 서비스 개방	●
투자자 내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 의무 부과 금지	◐		
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	◐	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(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해제)	◐
비관세 장벽 완화	◐	동식물 검역 절차 및 제도개선 (비관세 장벽)	◐
정부조달시장 개방	◐		
지적재산권 침해 방지	○		

● 매우 중요 ◐ 중요 ○ 보통

[별첨 4] 중국의 철강재 관세 (2010년 기준)

제품명	우대 관세	보통 관세
선재	3~6%	20%
후판	6%	17%
중판	6%	17%
열연코일	3~6%	14%
열연박판	6%	17%
냉연코일, 박판	3~6%	17%
전기강판	3%	20%
석도강판	5~10%	20%
아연도강판	4~8%	20%
기타 표면처리강판	4~8%	20%
반제품	2%	11%